

### ■ 명(1368 ~ 1644)

- 성립 : 원 말기 백련교도의 난 → 흥건적 출신 주원장이 대도 점령, 난징 도읍, 명 건국 → 육유 제정, 승상제 폐지, 이갑제 정비, 해금령(1371 ~ ) 실시
- 발전 : **영락제(⑤)**, 재위 1402 ~ 1424) 때 **베이징 천도**(자금성, 1421), 몽골 공격, 베트남의 수도(탕롱) 점령(1407), **정화의 항해**(1405 ~ 1433)
- **북로남왜의 화** → 국력 소모
  - : 몽골의 침략[**토목보의 변**(⑥) 정통제, 오이라트부 예센, 1449], **경술지변**(㉠ 가정제, 타타르부 알탄 칸, 1550]
    - ↳ 만리장성 다시 축조
  - : 왜구의 약탈[동남 해안, 16세기 초부터 왜구가 빈번하게 침범]
    - ↳ 왜구 토벌[척계광(1528 ~ 1588), 푸젠성의 황서도 등을 공격하여 왜구의 근거지 소탕, **왜구 근절**(1566)], 해금 정책 완화(1567)

### ■ 조선(1392 ~ 1910)

- 건국 : 명의 철령위 설치 통고와 고려의 요동 정벌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1388)** ⇨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의 **조선 건국(1392)**
- 사대교린의 외교
  - : **명과 조공·책봉 관계**[사대(事大), 정기적으로 사신(조천사)을 보내 조공, 1401 ~ ]
  - : 여진[국경 무역소 설치(회유), 4군 6진 개척(강경)]
  - : 일본[**쓰시마 정벌(1419)**, **3포 개항(부산포·내이포·염포, 1426)**과 **계해약조(1443)**]
    - ↳ 16세기 일본과의 교역 통제 강화[임신약조(1512)·정미약조(1547)] → **삼포왜란(1510)**, 을묘왜변(1555) 등 발생

### ■ 일본 무로마치 막부(1336 ~ 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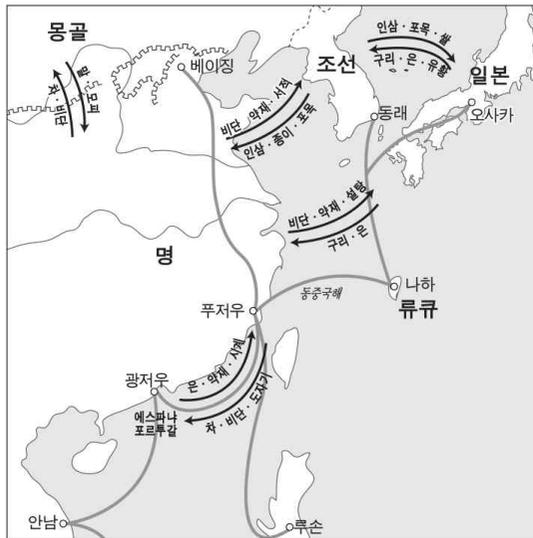
-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남·북조 분열 통일(1392)** → 명(明)과 국교 수립(아시카가 요시미쓰 일본 국왕 책봉, 1401) → **명과 감함 무역 전개**(1404 ~ 1547)
- **오닌의 난(1467 ~ 1477)**
  - ↳ **센고쿠 시대**(1467 ~ 1573) → **나가시노 전투**(오다 노부나가 승 도쿠가와 이에야스 ⇨ **다케다 가쓰요리, 1575**)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1590)**

### ■ 류큐(1429 ~ 1879)

- 오키나와 열도에 14세기 세 왕조(중산·북산·남산) 출현 ⇨ 중부의 중산 왕조가 삼국 통일 ⇨ **류큐 왕국 수립(1429)**
- 일본 시마즈씨[島津氏]의 침입(사쓰마 번, 1609) → 메이지 정부의 정복(1879) → 오키나와 현 설치

<p>몽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부족이 무역을 요구하며 수시로 침략 : <u>토목보의 변(오이라트 부 에센, 정통제, 1449)</u>, 다얀 칸의 다통 점령(1513), <u>경술지변(타타르 부 알탄 칸의 베이징 포위, 가정제, 1550)</u> ↳ 몽골과 강화를 맺어 군사비 절감, 만리장성 증축</li> <li>• <u>닝보의 난(1523)</u>과 <u>감합 무역 중단(1547)</u> : <u>왜구가 출몰</u>하여 동남 해안에서 잇따른 약탈 자행[가정제(㉑), 재위 1521 ~ 1567], <u>해금 정책 강화</u> : 척계광(1528 ~ 1588) → 저장성 파견(1555), 척가군(戚家軍) 창설, 원양진(鴛鴦陣) 고안, 왜구의 근거지 소탕, 왜구 섬멸(1566)</li> <li>• 포르투갈의 마카오 거주권 획득(1557)</li> <li>• 신종 만력제(㉒, 재위 1572 ~ 1620) 때 <u>장거정(1525 ~ 1582)의 개혁 정책 추진(1572 ~ 1582)</u> :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 <u>토지 조사</u>(토지 장량), <u>일조편법의 전국적 시행</u>으로 국가 재정의 호전(好轉)</li> <li>• <u>장거정 사후</u>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전횡으로 <u>정치적 혼란 심화</u></li> </ul>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구와 사림의 대립[사화(士禍), 1498 ~ 1547] ⇨ <u>사림의 집권</u> ⇨ 붕당의 성립(1575) ⇨ 붕당 간의 대립 격화</li> <li>• 대지주의 토지 검병 등으로 농민이 몰락하면서 <u>군에 복무할 인원과 전세 수입 감소</u> ↳ 농민에게 부과하던 군역 대신 군포 징수, 군적에 등록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실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크게 감소</li> <li>• <u>사대교린의 외교 정책</u> : 명 → 정기적으로 사신(조천사)을 보내 조공 : 일본 → 3포(부산포·내이포·염포) 중심 교역, 3포의 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교역이 원만하지 않자 난을 주도(<u>삼포 왜란, 1510</u>)</li> </ul>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오닌의 난(1467 ~ 1477)</u> : 다이묘의 패권 쟁탈전 전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전국) 시대의 혼란 지속</li> <li>• 포르투갈 상인의 <u>조총 전래(1543)</u> : 다이묘들의 패권 다툼에 이용되면서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 변화, ex) <u>나가시노 전투(1575)</u></li> <li>• 혼노지의 변(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으로 오다 노부나가 사망, 1582)</li> <li>• <u>도요토미 히데요시</u>의 전국 시대 통일[관백(關白, 간파쿠, 덴노를 대신해 정무 수행), 1590] : 전국적인 <u>토지 조사(검지)</u>, 도량형 통일, 석고제(石高制, = 코쿠다카) 실시, <u>무기 몰수령(도수령)</u> 시행 : 신분 이동 금지[하극상의 풍조 소멸], <u>병농 분리 확립</u>[무사·상공업자의 거주지(<u>조카마치</u>)와 농민의 거주지(농촌) 구분] : 무역의 확대와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영토 확장 등 대외 팽창 모색 ⇨ 조선에 정명향도(征明嚮導) 요구 ⇨ 조선의 거절과 조선 침략</li> </ul>

류큐(1429 ~ 1879)의 역사와 명(明)의 내외외환



명(明)은 조공 횡수를 국가마다 지정하였는데, 베트남은 3년에 한 번, 일본은 10년에 한 번 정도를 지정해 주었다. 이에 비해 **류큐는 1년에 한 번으로 우대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류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더 쉽게 더 많은 중국 상품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명의 해금 정책으로 명 상인이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워진 점도 류큐 상인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류큐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명과의 조공 무역을 중심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중계 무역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왼쪽 지도에 나온 류큐 왕국의 교역로는 류큐가 명의 상품을 일본, 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고, 각국의 특산품을 배에 싣고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조달한 물품에 자국의 생산품을 더하여 명으로 수출하고, 다시 배에 중국 상품을 가득 채워 귀환하는 전형적인 중계 무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류큐의 중계 무역은 1567년 명의 해금 정책 완화와 유럽 상인의 진출로 점차 쇠퇴했지만 그 위상은 여전하였다.** **1609년 일본의 사쓰마 번이 류큐를 정복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정복된 이후에도 류큐는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지속(양속 관계)하였다.** 일본이 류큐를 통한 명과의 교섭이나 무역이 갖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인 관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879년 메이지 정부가 류큐를 하나의 현으로 만들고 이어 오키나와로 개명하면서 끝났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1941 ~ 1945) 때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군사 기지가 건설되었고, 1951년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 이후에도 미국이 지배하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명(1368 ~ 1644)은 몽골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15세기 이래로 계속 몽골의 압박을 받았다. **몽골은 한때 명의 황제를 생포하고(토목보의 변), 베이징 성문까지 진격할(경술지변)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명은 이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다시 축조하였다. **동남 해안에서는 16세기 초부터 왜구가 빈번히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외적의 침입을 막느라 명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환관 세력이 득세하여 정치가 부패하고, 향촌 질서가 해체되어 국가의 기틀이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한 **장거정(1525 ~ 1582)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토지 조사**를 하였으며(토지 장량), **세금은 은(銀)으로 내게 하는 일조편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이 호전되는 등 중흥의 기운이 나타났다. 하지만 장거정이 죽은 뒤 그동안 억눌렸던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전횡으로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① 계해약조(『미래엔 교과서』, p.87)

- 대마도 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에 머무르는 날짜는 20일로 한정하고,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한다. - 『증정교린지』

② 조선의 군역 문란(『금성 교과서』, p.89)

백성들의 고생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 보병이 한 번 군역에 복무하는 데 드는 값이 배 150필까지 되므로 가난한 백성이 파산하여 집안이 망하고, 두 번 복무하면 지탱할 수 없어 도망쳐 흩어집니다. 도망치면 그 친척에게 거두기 때문에 친척도 지탱하지 못하고 모두 흩어집니다. -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③ 일본의 조총 전래(『미래엔 교과서』, p.88)

덴분(天文) 12년(1543)에 말이 통하지 않는 괴상한 생김새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표류하다가 다네가시마에 도착하였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오봉이라고 하는 명나라 유생이 필담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배 안의 손님은 ‘서남 야만족 상인(포르투갈인)’ 이었다. 상인의 우두머리가 갖고 있던 길이 2, 3척의 낫선 무기는 꿩음과 함께 탄환을 표적에 적중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는 그 첩포를 넘겨받자마자 사격 기술을 익히고, 이듬해에는 제조법도 부하들에게 습득시켰다. 그 후 첩포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다. - 『뱃포기』

④ 도검 몰수령의 시행(『비상 교과서』, p.88)

백성들이 도(刀), 단도, 활, 창, 첩포, 기타 무기·무구류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무구류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연공 등의 납입을 꺼리거나, 혹은 봉기를 일으켜 다이묘에게 토지를 받은 자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거두어들인 무기들은 대불을 건립하는 데 못, 꺾쇠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 시마즈가 문서 353호

⑤ 북로남왜의 화

- 가정 29년(1550)에 타타르의 **알탄**이 군대를 백묘(白廟)로 이동시켜 고북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합주아가 거짓으로 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말하여 변경의 방비를 느슨하게 하니, 알탄은 마침내 합자동·조유구를 경유하여 들어와 곧바로 베이징 지역을 침범하였다.
- 가정 32년(1553) 3월에 왕직이 여러 왜구들을 결집하여 대거 노략질하였는데, 수백 척의 전함이 연이어 바다를 뒤덮었다. 절동, 절서, 강남, 강북 연해의 수천 리에서 동시에 왜구가 출몰했다는 긴급 상황이 보고되었다. 왜구는 창국위를 격파하였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요토미 히데요시[관백(關白), 1537 ~ 1598]의 팽창 정책 : 16만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 침략(1592. 4. 13)</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 초기 : 일본군의 우세 → 오랜 내전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조총(鳥銃)의 위력을 바탕으로 연이어 승리 : 부산진 전투(4. 14), 탄금대 전투(4. 28), 한성 함락(5. 2), 평양 함락(6. 15)</li> <li>• 선조(㉔, 재위 1567 ~ 1608)의 <u>평양 피란</u>(4. 29) ⇨ <u>의주 피란</u>(6. 11) ⇨ 명에 원군 요청</li> <li>• 각지에서 의병 봉기,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한산도 대첩, 7. 8)으로 전쟁의 양상 변화</li> <li>• <u>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명의 참전</u> : 1차 파병(조승훈), 2차 파병(이여송, 12月) →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전으로 확대</li> <li>• <u>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수복</u>(1593. 1. 3) ⇨ <u>명군의 벽제관 전투 패배</u>(1593. 1. 27) ⇨ 한성 탈환에 실패, 전쟁의 교착 상태</li> <li>• 행주 대첩(1593. 2. 12) ⇨ 한성 수복(1593. 4. 18)</li> <li>•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 시작(1593. 5月) ⇨ 일본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 결렬(1596)</li> <li>• <u>정유재란</u>(일본군의 재침, 1597. 1月) ⇨ 칠천량 해전(1597. 7. 15) ⇨ 직산 전투(1597. 9. 7) ⇨ 명량 대첩(1597. 9. 16)</li> <li>•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사(1598. 8. 18) ⇨ 노량 해전(1598. 11. 18) ⇨ 전쟁 종료</li> </ul>	
결과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 쇠퇴 ⇨ <u>후금(1616)의 성장</u></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황폐화, <u>명을 숭상하는 분위기 고조</u>[<u>재조지은(再造之恩)</u>]</li> <li>• 광해군(㉕, 재위 1608 ~ 1623)의 전란 수습 정책 : 토지 대장과 호적 재정비, 불에 탄 궁궐과 성곽 수리, 『동의보감』 간행(1613)</li> <li>• <u>항왜인</u>[<u>降倭人</u>, 귀순 왜장 사야가(김충선)], <u>항왜촌</u>(降倭村), <u>신문용</u>[조선에 귀화한 명(明)의 장수, 왕릉 조성에 기여]</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 ~ 1616) : <u>세키가하라 전투</u>(⇨ 서군 대장 이시다 미쓰나리, 1600) 승리 ⇨ <u>에도 막부 수립(1603)</u></li> <li>• 문화 발전 : 성리학의 이해 심화(강행), 도자기 발달(이삼평·백파선, 아리타야키)</li> <li>• 조선과 국교·교역 재개 : 포로 송환 협의(1604), 회답겸쇄환사 파견(1607·1617·1624), 조선통신사 재개(1607 ~ 1811), <u>기유약조(1609)</u></li> </ul>

❶ 일본이 요구한 주요 강화 조건(『천재·금성 교과서』, p.89·91)

- 명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 명과 일본 양국의 전권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할 것
- 조선의 남부 4도(경상, 전라, 충청, 경기)를 일본에 할양할 것
- 일본과 명의 무역을 재개하여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할 것
-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 일본은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할 것
-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할 것

- 『선조실록』(1596. 4. 10)

❷ 명의 참전 목적①(『금성·비상 교과서』, p.101·93)

조선은 동쪽 변방에 끼어 있어 우리(명)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깝습니다. 평양은 서쪽으로 압록강과 인접하고 진주는 직접 등주를 맞대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차지하여 라오둥을 엇본다면 1년도 안 되어 베이징이 위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을 지켜야만 라오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왕재진, 『해방찬요』

❸ 명의 참전 목적②(『금성 교과서』, p.90)

신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명) 국경입니다. …… 라오둥은 베이징의 팔 같은 것이고, 조선은 라오둥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 200년 동안 푸젠성과 저장성이 항상 왜(왜구)의 화를 입었으나, 라오양과 텐진에 왜가 없었던 것은 조선이 울타리처럼 막았기 때문입니다.

- 『선조수정실록』

❹ 임진왜란·정유재란의 피해(『천재 교과서』, p.91)

- 적군의 배(일본 배)에 강제로 태워져 순천 앞바다까지 가는 동안 600 ~ 700척의 배가 바다를 메우고 있었다. 이들 배에는 우리나라의 남녀가 일본인과 거의 같은 수로 있었는데, 배마다 나오는 통곡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시킬 정도였다. - 강항, 『간양록(看羊錄)』
- 일본 나고야성에 도착한 사타케 요시노부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여도 좋다. 마을이 폐허가 되어도 상관 없다.” 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타케군이 인부로 동원한 일반 백성은 약 1,500명이었다. 탈주자가 생기자 죽여서라도 탈주를 막으려고 하였다. - 『마주 보는 한일사』(2007)

▶ 정묘호란(1627)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해군(㉕, 재위 1608 ~ 1623)의 중립 외교(명 ~ 후금) : 명(明)의 출병 요청 수락 → <b>사르후 전투(1619)</b>, 강홍립(1560 ~ 1627)의 투항</li> <li>• <b>인조반정(1623)</b> : 광해군의 대내외 정책에 반감을 품은 서인 일파의 정변 : <b>광해군 폐위</b>, 인조(㉖, 1623 ~ 1649) 즉위</li> <li>•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 : <b>가도 사건</b>[가도도독부 도독 모문룡(1622 ~ 1629)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이괄의 난(1624)과 잔여 세력의 후금 투항</li> <li>• 후금의 선양(瀋陽) 천도(1625)</li> <li>• 영원성 전투(1626)에서 누르하치(1559 ~ ) 사망</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금 흥타이지(재위 1626 ~ 1636)의 침략 ⇨ 인조의 강화도 피란 ⇨ 황해도 평산(平山)까지 침입, 2개월간 지속</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묘약조(1627)</b> : 명의 위협 등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b>형제의 맹약</b>을 맺고 철수 → 조공 지급, 개시무역(開市貿易) 실시</li> </ul>	

▶ 병자호란(1636)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금의 <b>칭제건원(稱帝建元)</b>, 국호를 청(淸)으로 변경(1636),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주화론(主和論)과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의 대립 ⇨ 척화론의 우세와 군신관계 요구 거부 ⇨ 태종(肅穆제, 재위 1636 ~ 1643)의 침략</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 만에 한성 함락 ⇨ <b>인조의 남한산성 피신</b> ⇨ 왕비와 왕족이 피란해 있던 강화도 함락 ⇨ 각지에서 올라오던 구원군의 패배</li> </ul>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 청, 조공 · 책봉의 <b>군신관계</b> 체결(1637) : <b>삼전도의 굴욕</b>(삼계구고두), 명과 관계 단절, 명과의 항쟁에 필요한 물자 제공, 청태종공덕비 건립(= 삼전도비, 1639), <b>연행사(燕行使) 파견</b>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척화론자 등 압송 → 심양관(1637 ~ 1644) ⇨ 베이징(1644 ~ 1645) : 환향녀(속환녀), 반청 의식 고조(대명거사, 송정처사)</li> <li>• 이자성의 반란군(1631 ~ )의 베이징 점령 → <b>명의 멸망(1644)</b> → <b>산해관</b> 총병(山海關 擄兵) 오삼계의 안내로 청의 베이징 입성(1644)</li> </ul>

## ① 일본 교과서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기술(『천재 교과서』, p.92)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 조공하고, 명을 침공할 때 앞장서라고 조선에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1592년(분로쿠 원년) 조선에 16만 여의 대군을 보내 침략 전쟁을 시작하였다(분로쿠의 역). …… 명으로부터 원군이 도착하고, 각지에서 조선 민중이 의병을 일으켰다. …… 히데요시는 명과의 강화 교섭을 위해 휴전했지만, 교섭은 결렬되었다. 1597년(게이초 2),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과 전쟁을 시작하였다(게이초의 역). - 『신선 일본사 B』

## ② 청 태종

만주의 신(臣)이 감히 하늘과 땅에 고합니다. 저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칸의 자리를 계승한 이래 대도(大道)를 위하여 항상 힘쓰기를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자비로 몽골을 하나로 통합하고 옥새와 강토를 얻었습니다. …… 몹 사람들의 뜻을 따라 황제의 존호를 받아들이고 국호를 고쳐서 대청, 연호를 개원하여 승덕(崇德) 원년으로 하였습니다.

## ③ 최명길(1586 ~ 1647)의 주화론(『천재·금성 교과서』, p.9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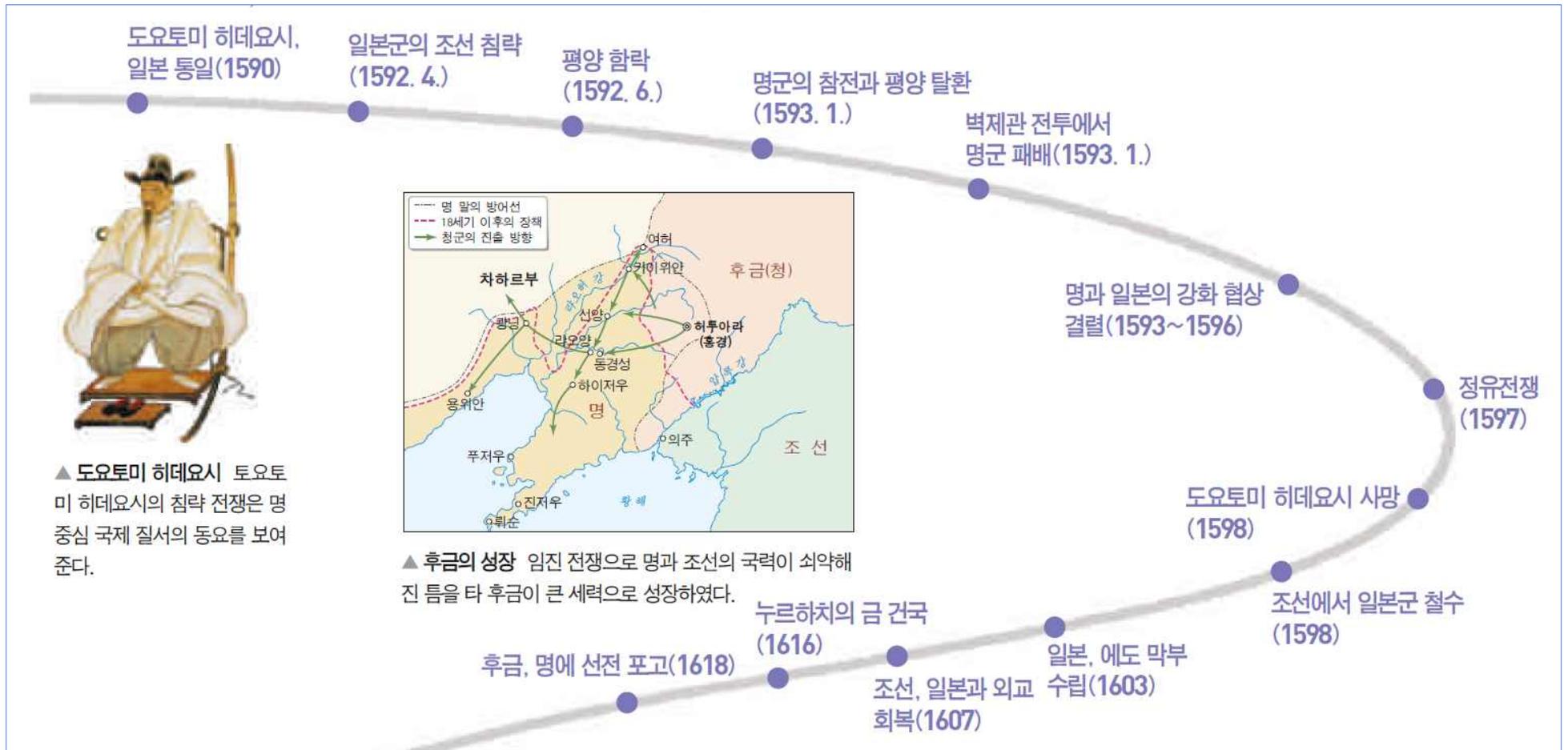
주화(主和), 이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에 허물이 될 줄 잘 압니다. …… 자신의 힘을 생각지 않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치다가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이 끊어지게 한다면 그 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정묘년 때의 맹약을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해야 합니다. - 『지천집』

## ④ 윤집(1606 ~ 1637)의 척화론(『천재·금성·미래엔 교과서』, p.90·93·95)

천조(명)는 우리나라에 부모의 나라이고…… (후금과) 형제의 의를 맺음으로써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작은 것조차도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세력이 크게 확장하여 명의 수도를 핍박하고 황릉을 더럽혔는데…… 병력이 미약하여 정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차마 이런 시기에 어찌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1636. 11. 8

## ⑤ 일본의 중국 인식

승정제(㉔, 의종 민황제, 재위 1627 ~ 1644)가 사망하고 (남명을 수립한) 흥광제는 달로(撻虜, 여진)에게 패하였다. 당왕이라든가 노왕이 겨우 남쪽 귀퉁이를 보존할 뿐 중원은 달로가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화(華)가 이(夷)에 의해 대체되는 사태이다. …… 최근에 오삼계나 정경이 각 성에 격문을 날려 (명 왕조) 회복을 위한 군병을 일으켰다. 그 승패의 행방은 듣지 못했지만, 만약 이가 화를 대신하는 사태가 된다면, 비록 이역의 일이라고는 해도 이 어찌 상패한 일이 아니겠는가? - 하야시 슌사이, 『화이변태(華夷變態)』(1674)



▲ 도요토미 히데요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은 명 중심 국제 질서의 동요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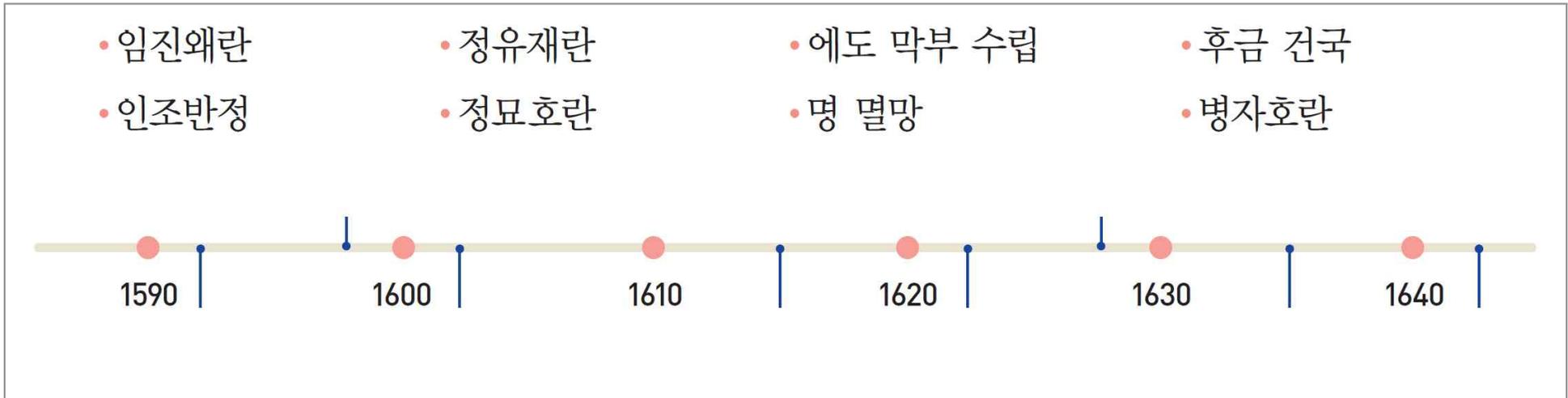
▲ 후금의 성장 임진 전쟁으로 명과 조선의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 후금이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



지역(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중국 본토 · 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 약화</li> <li>• 여진족의 성장 → ( )의 건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멸망</li> <li>• ( ) 중심의 국제 질서 수립</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에 대해 ( )의 인식 강화</li> <li>• 일본과 국교 재개 → ( ) 파견</li> <li>• 인조반정 이후 ( )의 외교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과 조공 · 책봉 관계</li> <li>↳ ( ) 파견</li> <li>• ( )과 조선중화주의 의식 대두</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막부 성립(1603)</li> <li>• 조선과 국교 재개, 명 · 청과 정식 국교를 맺지 않음</li> </ul>	



개념 Check

- ①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1543년 수용된 ( )은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에 변화를 가져왔고, 1549년에는 크리스토포르가 전래되었다.
- ② 오이라트부에 의해 발생한 1449년의 ( ) 이후 명은 만리장성을 개축하였다.
- ③ 장거정(1525 ~ 1582)은 수취 제도를 개혁하여 세금을 은(銀)으로 징수하는 ( )을 확대 시행하였다.
- ④ 조선의 사림은 ( )를 겪으면서도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 ⑤ 일본은 1467년 ( )을 계기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戰國) 시대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 ⑥ 1575년 ( )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가 이끈 연합군이 조총을 이용하여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부대를 격파하였다.
- ⑦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 )을 시행하여 무사만이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⑧ 평양성 탈환 이후 이어송이 이끄는 명군은 ( )에서 일본군에 대패하여 한성 탈환에 실패하였다.
- ⑨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인 1609년 ( )를 체결하여 일본과 교역을 재개하였다.
- ⑩ 누르하치는 ( )를 조직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 )을 건국하였다.
- ⑪ ( )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 ⑫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 세력은 가도에 주둔하던 명의 장수 (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⑬ 병자호란의 결과 청에 굴복하여 ( )에서 인조가 항복 의식을 거행하였다.

▶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주군께서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마땅히 성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평안도의 섬으로 들어간 명의 장수가 우리를 저버린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도 처벌하라.” 라고 하였다.

	(가)	(나)	(다)	(라)	(미)	
나가시노 전투	조·명 연합군 평양성 탈환	에도 막부 수립	사르후 전투	인조 반정	후금 청으로 국호 개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미)

▶ 밑줄 친 ‘그’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대 쇼군인 그는 명 황제에게 사신단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다. 황제는 그들을 후하게 예우한 뒤 무로마치로 돌려보내며, 무역을 할 수 있는 감합과 일본 국왕임을 인정하는 금인(金印)을 하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중국과 감합 무역을 시작하였다.

①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②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③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④ 가마쿠라에 막부를 수립하였다.

⑤ 다케다 가쓰요리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 다음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 ②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 ③ 모문룡이 가도를 근거지로 삼았다.
- ④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서 투항하였다.
- ⑤ 일본이 조선 남부 4도 할양 등을 요구하였다.

▣ 16 ~ 17세기 동아시아의 사건 전개

삼포왜란(\_\_\_\_년) → 포르투갈 마카오 조차(\_\_\_\_년) → 에스파냐의 마닐라 점령(\_\_\_\_년) → 나가시노 전투(\_\_\_\_년) → 정유재란(\_\_\_\_년) → 세키가하라 전투(\_\_\_\_년) → 기유약조 체결(\_\_\_\_년) → 오사카 전투(1614) → 영원성 전투(1626) → 병자호란(\_\_\_\_년)

▶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과 국교를 끊고, 청과 조공·책봉 관계 수립(16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이 명을 공격할 때 군사적 지원 강요</li> </ul> </li> <li>• 효종(㉒, 재위 1649 ~ 1659) 대 <b>북벌</b>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인 <b>송시열</b>(1607 ~ 1689)의 기축 봉사[존주대의(尊周大義)·<b>복수설치</b>(復讎雪恥), 1649]</li> <li>↳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으나 중화 문명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b>조선 중화주의</b> 확산</li> </ul> </li> <li>• 비변사(1517 ~ )의 기능 강화, 5군영과 속오군 등 군사 조직 정비</li> <li>• 농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영정법, <b>대동법(1608 ~ )</b>, 균역법 등 수취 제도 시행</li> <li>• 노비의 도망이나 군공, 납속책 등으로 양천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신분제 형성</li> </ul>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을 제압하고 중원 공략에 전념</li> <li>• 이자성의 농민군이 명을 무너뜨린 틈을 타 <b>베이징 점령(오삼계 안내, 1644)</b>,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몽골인 부대를 앞세워 중원 장악</li> <li>• <b>강희제</b>(㉔, 재위 1661 ~ 1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 부흥 운동 ⇨ 남명 수립(홍광제, 1644) ⇨ 남명 정복(1662) ⇨ 영력제(㉖, 재위 1646 ~ 1662)의 도주 ⇨ 정무제(㉘, 재위 1662 ~ 1664)</li> <li>: <b>삼번의 난</b>(오삼계·상지신·경정충, <b>1673 ~ 1681</b>) 진압, 타이완의 정씨 세력[<b>정성공(1624 ~ 1662)</b>·<b>정경의 난, 1661 ~ 1683</b>] 제압</li> </ul> </li> <li>• <b>건륭제</b>(㉚, 재위 1735 ~ 1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베트, 신장, 몽골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 확보 →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으로 성장</li> </ul> </li> </ul>

Check!

중화 의식의 변화 - 자국 중심의 중화주의

병자호란(1636)과 명(明)의 멸망(1644)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지난 200년 동안 명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규정한 화이론(華夷論)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면에 나타났다. 송시열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조선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조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송시열이 쓴 ‘해동(조선)의 하늘과 땅은 주(周)나라를 높이 받드는 것이 대의이다.’ 라는 이 여덟 글자는 조선 중화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청의 옹정제**(㉙, 재위 1722 ~ 1735)는 **1729년 『대의각미록』을 간행하여, 오랑캐라 하더라도 천명을 받으면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며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야마자키 안사이**(1619 ~ 1682)는 **일본형 화이관**을 내세우며 만세 일계의 신국으로서 일본의 중화적 정체성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 청, 조선, 일본은 모두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화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문물 교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에서 많은 서적과 구리 활자, 불화 등을 약탈</li> <li>• 유학자와 도공, 목수, 한지 제작공, 인쇄공 등의 기술자를 포로로 압송 → 에도 시대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li> <li>• 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청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음</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를 비롯한 새로운 작물 전래 → 상품 작물로 널리 재배, 연초 산업 발달</li> <li>•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에도 막부에 <b>통신사(通信使)</b> 파견(1607 ~ 1811) :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 학술과 문물의 교류 촉진</li> <li>•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영향으로 관우 신앙 확대와 동묘 건립, 은(銀) 유통</li> <li>• 청에 불모로 가 있던 <b>소현 세자(1612 ~ 1645)</b>는 <b>독일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b>하고, 천문학과 천주교에 관한 책 등을 가지고 귀국(1645)</li> <li>• 병자호란 이후 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b>연행사(燕行使)</b> 파견 : 연행사 등을 통하여 점차 청의 문물을 접한 후 <b>북학 운동</b> 추진 → 천리경을 비롯한 천문 기구와 <b>시헌력(아담 샬, 1645)</b> 전래</li> </ul>



## ① 중화 의식의 변화①(『미래엔 교과서』, p.95)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만은 명나라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니 청나라도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예의에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밑에 우리만이 동주(東周)를 위하고 있는데, 귀국(일본)에서도 중화의 것을 쓸 용의가 있습니까?

- 통신사 조태억과 아라이 하쿠세키의 필담(1711)

## ② 중화 의식의 변화②(『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97·93·95)

-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변방에 거처하여 중원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원에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방에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 중화인은 인의를 아는 것이고, 오랑캐는 윤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 태어난 곳이 중원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 오정제, 『대의각미록』
- 사람은 마음으로 어둠과 의로움을 알고 금수에게는 윤리가 없다. 어찌 (태어난) 곳이 중국 땅인가 그 바깥인가를 따져서 사람과 금수를 나눌 수 있겠는가? …… 순임금은 동이였고 (주나라) 문왕은 서이었다. 이러한 것이 어찌 그들의 거룩한 덕에 손상을 입혔겠는가? - 오정제, 『대의각미록』

## ③ 박지원(1737 ~ 1805)의 북학론(『비상 교과서』, p.92)

우리는 저들(청)과 비교하여 한 치도 나은 점이 없다.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

- 『연암집(燕巖集)』

## ④ 통신사와 문화 교류(『미래엔 교과서』, p.94)

- 작은 배를 타고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큰 배로 옮겨 탔다. 이날 쇄환된 사람은 120여 명이였다. - 오윤겸, 『동서상일록』
- 돌아가는 길에 고구마를 구해서 동래의 관리에게 줄 예정이다.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렸듯이 이것들을 다 살려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린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 조엄, 『해사일기』

16세기 서양 세력의 진출

포르투갈

: 몰라카 정복(1511) → 조총 전래(1543) → 크리스티교 선교(1549) → 마카오 조차(1557)

에스파냐

: 필리핀 진출(1521) → 마닐라 차지(1571)

명(1368~1644)

- ① 토목의 변(1449), 경술지변(알탄칸, 1550)  
동남 해안 → 왜구 침략(1547 ~ )
- ② 쌀·은 유통 → 빈부격차, 세금 부담
- ③ 장거정 개혁 - 일조편법 확대 실시(1573)  
(1572 ~ 1582)

조선

- ① 훈구(공신, 대토지) ↔ 사림(향촌) : **사화**  
↳ **붕당**(1575 ~ )
- ② 평화 지속(군사력 약화, 수취 제도 문란)

일본

- ① 센고쿠 시대(다이묘, 분열, 조총)
- ② 통일(도요토미)
  - 토지 조사(검지), 석고제
  - 도량형 통일
  - 무기 물수령(도수령)
  - 무사·상공업자·농민
  - [신분 이동 금지]
  - 병농 분리
  - [조카마치(무사, 상인)]

영향

- ① 朝 : 국토 황폐화, 명(明)에 대한 사대[재조지은(再造之恩)] 강화
- ② 明 : 쇠퇴 → 재정 악화, 환관 횡포, 농민 봉기
- ③ 日 :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하라 전투(1600)** → 에도막부(1603) \*정묘호란(1627)  
포로[도공(이삼평, 백파선, 아리타야키), 성리학(강항)]  
통신사 재개(1607), 회담겸쇄환사, 기유약조(1609)
- ④ 여진 : **누르하치, 팔기제, 후금 건국(1616)**, 명(明) 공격

임진왜란(1592)

- ↳ 일본, 정명향도 요구 → 조선 거부
- ① 부산 상륙(4月), 초반 일본 승리(조총)
  - 광해군, 중립외교(명의 출병 요청 수락)
  - 인 조, 친명배금 → 후금 반발
- ② 선조 평양(4月), 의주(6月) 피난, 수군 활약
- ③ 조·명 연합군 → 평양성 탈환(1593. 1月)
- ④ 명, 벽제관 전투 패 → 휴전 협상 →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
- ⑤ 정유재란(1597) : 일본군의 재침
- ⑥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1598. 8月) → 철수
- ⑦ 이순신, 노량해전(1598. 11月)

병자호란(1636)

- ↳ 배경 : 인조반정, 가도 사건(모문룡)
- ↳ 결과 : 후금과 형제 관계 체결
- ① 후금 → 청(1636), 칭제건원
- ② 청,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③ 남한산성 항전
- ④ **삼전도의 굴욕**  
: 인조, 삼배구고두
- 병자호란 이후
- 중
  - ① 명 멸망(이자성의 난, 1644)
  - ② 청, 베이징 입성(오삼계, 1644)
  - ③ 강희제, 삼번의 난(1673 ~ 81)  
정성공의 난(1661 ~ 83)
- 조선
  - ① 북벌론, 효종(재위 1649 ~ 1659)
  - ② 조선 중화주의 확산
  - ③ 청에 조공 사절(연행사) 파견
  - ④ 초량 왜관 설치(1678)
- 에도
  - 명·청과 조공책봉의 관계 X
  - 조선·류큐와 국교 유지

개념 Check

- ① 효종(⑪, 재위 1649 ~ 1659) 시기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는 ( )이 대두하였다.
- ② 청의 강희제(④, 재위 1661 ~ 1722)는 오삼계, 경정충 등이 일으킨 ( )과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제압하였다.
- ③ 1637년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 세자는 서양인 선교사 ( )과 교류하였다.
- ④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 )를 파견하였다.
- ⑤ 명의 멸망 이후 청, 조선, 에도 막부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 )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주족이 점령한 지 오래되자 중국 땅에 원망과 노여움이 일어나 오삼계 등이 삼번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달단(黠鞬, 타타르)은 북쪽에서, 정성공 세력은 타이완에서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고 있으며 변발을 강요받는 유민들이 애타게 명나라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보기>

- ㉠ 한국 - 조선중화주의가 확산되었다.
- ㉡ 일본 - 일본형 화이관을 내세우며 만세 일계의 신국으로서 일본의 중화적 정체성을 주장하였다.
- ㉢ 중국 - 교초(交鈔)라 불리는 지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 ㉣ 류큐 - 중계무역으로 번성하였다.

- ① ㉠, ㉡
- ④ ㉡, ㉣

- ② ㉠, ㉢
- ⑤ ㉢, ㉣

- ③ ㉡, ㉢

안타깝도다! 것처럼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지녔음에도, 명나라가 갑신년(1644) 3월에 멸망을 맞이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그 뒤로부터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러서는 순(舜)·우(禹) 임금이 돌아보던 땅과 공자·주자가 가르침을 전하던 지역이 모두 옛날과 달라져 오랑캐의 비린내만 가득해졌으니 …… 오직 우리나라만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홀로 예를 간직한 나라가 되었으니, 주나라 예법이 노나라에 있다고 할 만하다. 공자께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뗏목을 타고 동쪽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 138, 「황여고실서」

▶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투항한 사야가는 새로운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격 기술을 전수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 그는 왕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훗날 정2품 정헌대부에 올랐다.
- 포로로 끌려온 이삼평은 아리타 지역에서 양질의 점토를 발견하고, 자기를 굽는 가마를 만들었다. 그의 명성이 점차 퍼져 나가 많은 장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훗날 ‘도자기의 시조’ 라고 불렸다.

- ① 아스카 문화의 형성 배경을 파악한다.
- ② 견당사를 통해 유입된 선진 문물을 알아본다.
- ③ 전쟁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문화 전파를 찾아본다.
- ④ 승려의 구법 활동을 통한 교류 사례를 분석한다.
- ⑤ 몽골 제국 시기 역참을 통한 문물 교류를 조사한다.